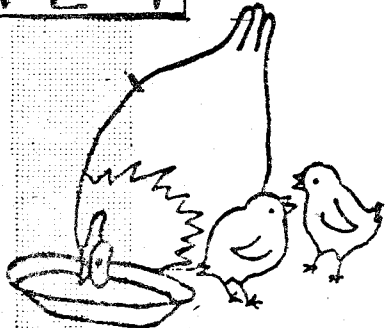


이달의



사양관리

본격적인 강추위가 계절(鷄體)에 대한 심한 스트레스를 유발시킬 것이 예상되는 달이기도 하다.

보온, 환기, 습도 등에 대한 기본적인 관리면에서부터 체크를 해가며 좀더 닭에 대한 애정과 주의깊은 관찰력, 규칙적인 관리의 합리화 그

리고 환경의생에 세심한 계획이 필요하리라 본다.

1. 연속적인 한냉 스트레스로부터 계체를 보호하자.

일년중 가장 한냉 스트레스로부터 피해를 받기 쉬운 계절에 접어들었다. 외부 환경에 대한 적응력이 불가능하거나 다소 적응력이 낮은 계체는 더욱 보호책이 시급하다고 본다.

닭의 정상 체온은 41°C~41.5°C로 다가축에 비해 비교적 한냉 스트레스에 적응은 다소 된다고 보지만 기본적인 정상 관리의 결여에서 오는 즉 영양 관리의 소홀이라던가 환경위생 관리의 소홀등으로 인하여 연속적으로 엄습해 오는 환경적인 한냉 스트레스에 대한 적응력이 문제가 되는 것이다. 결국 계체는 2차적인 세균의 침입을 받게 되므로 많은 문제점을 야기시키게 된다.

이러한 문제점 해결을 위해 지상에 누차 지적한 기본적인 관리지침을 잘 이행하고 있는

가 우선 고려하여야 되겠다.

2. 기본적인 일반관리 합리화의 음미.

너무나 전문적인 경영방법을 택하다보면 상식적이고 일반적인 기본적인 관리에는 다소 소홀해지는 수가 많다고 본다.

한냉의 환경적인 요소로 인한 신체상의 위축에서 오는 나태감과 무사 안일주의적인 관리자들의 자세여부가 문제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기본적인 정신 자세의 확립이 선결된 후에 일반관리의 일원화가 가능해 진다고 본다.

너무나 상식적이고 일반적인 관리겠으나 과연 이런 면에서는 소홀한 감이 없었던가를 음미하여 나가면서 앞으로의 계획된 운영을 발전시키게 되기를 바라고 싶다.

즉 계획된 점등과 소등시간은 과연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가?

문틈사이로 셋바람은 스며들지는 않으며 자릿깃은 항상 청결히 10cm정도의 두께로 깔아주고 있는가?

계체의 건강유지와 생산력을 높이는데 기본이 되는 사내온도가 12°C~15°C를 유지하며 야간에는 주간의 13°C 보다 높은 16°C내외를 유지시키고 있는가?

<최악의 경우일 때라도 사내온도는 2°C이상을 유지시켜야 한다>

천정이나 벽사이에 빙을 왕

1월

정 보 남

<한국가금협회경제능력검정소>

겨 벗짚 톱밥등 월동준비는 잘 되어 있는가?

동란방지를 위해 채란은 1일에 4~6회 정도로 하고 있으며 부화용 종란보존은 10°C~13°C의 온도와 80%의 상관습도를 유지시키고 있는가?

광선의 실내유도로 인한 영양학적인 배려는 어떠한가?

<남쪽창문이 기점으로 막혀 방해가 될 때에는 기업을 잘라서 광선이 잘 들어오게 하며 북쪽창문은 비닐등으로 막아주면 더욱 좋겠다>

급수시엔 온수로 대처하고 있으며 사료손실방지책은 강구되어 있는가?

등기휴산성인 닭과 목은 닭의 종야 점등 사육시 산란피로로 인한 폐계조치는 되어 있는가.

<여기서 등기휴산성인 닭이란 12월1일~2월28일까지 계속 1주일 이상 휴산하는 닭을 말한다>

동기의 에너지 소모 방지책으로 비타민A의 총족과 녹사로는 물론 곡류사료량을 배합시 늘리고 있는가?

<이때 강류사료량은 반대로 줄여야 된다.>

야간경비자나 부화실의 야간근무자들의 근무상태는 과연 철저한가?

배합사료에 정상 데이터 대로 첨가체나 각종 성분함량이 주어지고 있는가?

관리자들에게 너무나 노동만을 강요하지는 않으며 분위기 조성에 소홀하지는 않는가?

책임자와 관리자들의 유대관계는 어떤가? 등등 기본적으로

고 상식적인 면에서 부터 자체 확립을 확고히 한 후에야 제2의 고차원적인 경영계획을 실행해 나가는 데 지장이 없겠다고 본다.

3. 환경위생의 합리화로 방역에 만전을 기하자.

외국종이 다량 도입 사육되면서부터 과거에는 그다지 신경을 쓰지 않았던 질병문제가 지금에 와서는 상당한 관심을 갖지 않으면 안되게끔 비약하고 있는 것 같다.

과거에는 간단한 약으로도 치료가 되었던 것이 현재는 치료불가능한 질병과 혼합감염으로 인한 질병때문에 치료를 한다고 해도 시일이 요하게 되고 적지않은 비용이 들게 되므로 치료에 앞서 질병예방에 중점적인 경영방식을 택하여야겠다고 본다.

전염병이 발생되기 위해서는 세가지의 조건이 부여 또는 일치되므로써 발병되게 된다.

- 즉 ① 전염병
- ② 매개물
- ③ 감수성있는 개체이다.

이 세가지 중에서 한가지만의 조건을 차단시킬때 예방에 성공했다고 본다.

뉴캐슬이나 마렐병, 류코사이토준은 현재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알려진 만큼 예방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인식해야겠다.

특히 이달은 각종 스트레스로 인한 심신의 피로가 겹쳐서 병에 대한 저항력이 감퇴되므로 호흡기에 친화성을 갖는 각종

세균들의 침입이 우려되는 만큼 전염성 코라이자, 전염성 기관지염, 전염성 후두기관지염, 곰팡이성 폐렴, 계두의 디프테리아형, 뉴캐슬, 닭케스트등의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겠다.

외래인사들의 출입을 제한한다거나 정기적인 소독과청결정돈, 계획적인 접종, 병계에 대한 조기처리등을 해결한다면 우선 제1차적인 예방은 했다고 본다.

이상에서 지적한 몇가지를 요약하여 보면 최근 양계업의 성패는 상식적이고 일반적인 관리와 환경위생의 우열로서 좌우되는 만큼 1. 일반관리의 합리화 2. 환경위생의 합리화 3. 영양관리의 합리화 4. 특수관리의 합리화 등의 경영에 만전을 기해야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1월에 접어들어 방풍방한으로서 철저한 보온을 유지시켜 주어야 되는데 이때 보온에 치중하다 보면 환기가 제대로 되지 않아 이로 인한 많은 손실이 우려되니 이점에 대한 충분한 관리도 문제되겠다.

그리고 관리자들에겐 노동만을 강요하기에 앞서 닭에 대한 애정을 쏟을 수 있고 그 어떤 긍지를 느끼고 자발적으로 관리에 임할 수 있게 주어진 조건에 상당한 관심과 시정이 요구되는 바이다.

1972년도 첫달을 맞이하여 금년에는 지난해에 부족했던 모든면에 대한 개선과 시정을 해나가므로써 보다 진취적이고 보다 발전있는 경영을 해 나가게 되기를 축원한다. □□